

신라 太宗 廟號와 일통삼한 의식*

안 주 홍**

- I. 머리말
- II. 종묘제 수용과 태종 묘호
- III. 문무왕의 태종 봉호와 종묘의 위상 강화
- IV. 일통삼한의 공덕 추승과 이중적 천하관
- V. 맺음말

국문초록

이 글은 신라의 태종 廟號와 一統三韓 의식을 검토한 것이다. 크게 세 가지를 살펴보았다. 첫째, 태종 호칭의 성격 문제이다. 태종은 功德에 따라 올린 祖宗의 칭호로 不毀廟이다. 신라는 태종무열왕대에 종묘제를 수용하여 제후 5묘를 세웠다. 이미 종묘가 성립되었으므로, 태종은 종묘에 올려진 묘호이다. 둘째, 봉호의 시점이다. 문무왕은 662년에 즉위 의례를 거행하였다. 당의 책봉을 받고, 중시를 임명하며, 大赦를 하였다. 또 탐라의 복속을 받고, 백제 평정을 기리는 개선의식을 행하였다. 이때 태조의 정당한 계승자라는 의미로 무열왕에게 태종의 묘호를 올렸다. 셋

* 이 논문은 2021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21S1A5B5A17057464)

** 경북대학교 사학과 강사 / ajhknu@naver.com

째, 태종 칭호에 반영된 신라의 천하관이다. 일통삼한은 백제와 고구려의 평정과 같은 의미이다. 신라는 삼한이라는 천하를 평정한 천자를 표방하면서도, 당의 제후를 인정하는 이중적인 천하관을 가졌다. 문무왕은 668년에 선조묘(종묘)에 고구려 평정을 고하는 개선의식을 행하였다. 이때 태종에게 일통삼한의 공덕을 올렸다. 신라의 종묘는 662년에 즉위 의례를 거행한 공간이자, 665년에 취리산 회맹문을 보관한 장소이다. 또 668년에 백제와 고구려의 평정을 고한 곳이었다. 이러한 의식을 거행하며 종묘는 국가 제사의 祭場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었다.

◆ 주제어

태종, 종묘, 천하관, 천지서상지, 선조묘

I. 머리말

『삼국사기』에 따르면 661년 6월에 태종무열왕이 죽자 諡號를 무열로 하고 장례를 행한 뒤, 太宗의 호를 올렸다. 692년에 당 중종은 당 태종의 廟號와 같다며 고칠 것을 요구하였다. 신라는 무열왕의 태종은 諡號로 一統三韓의 功德으로 올린 것이라 하였다.¹⁾ 같은 내용이 『삼국유사』도 전하는데 차이가 있다. 태종은 묘호이고, 논쟁을 제기한 주체는 당 고종이다.²⁾

이 같은 기록의 차이로 태종 칭호의 성격과 봉호의 시점에 대해 다양한 견해가 제기되었다.³⁾ 태종을 묘호로 보거나, 시호로 보는 견해가 있다. 최근 태종은 묘호이지만, 종묘제의 존재를 보여주는 충분조건은 아니라는 지적도 제기되었다. 따라서 종묘제의 수용과 짝하여 태종 칭호의 성격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문무왕은 장례를 치른 후 태종을 봉호하였다. 이에 봉호의 시점을 665년, 670년대, 687년 등으로 추정하는 여러 견해가 제기되었다. 서로 다른 견해가 제기된 만큼, 봉호의 시점에 대한 상세한 논증이 필요하다.

신라는 태종의 공덕을 일통삼한으로 꼽았다. 최근 일통삼한 의식을 천하관과 연결하여, 신라가 대국을 표방하며 당과 대등하다는 천하관을 가졌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따라서 종묘제의 운영이라는 측면에서 일통삼한에 내포된 신라의 천하관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에 2장에서는 태종 칭호의 성격을 살펴볼 것이다. 종묘제의 수용 시점을 검토하여 태종이 종묘에 올려진 묘호인지 알아보겠다. 3장에서는 태종이 봉호된 시점을 살펴보고, 국가 제사의 정비과정을 통해 종묘의 위상 강화를 알아볼 것이다. 4장에서는 태종에게 일통삼한의 공덕이 올

1) 『삼국사기』 권5, 신라본기5 태종무열왕 8년. 같은 책 권8, 신라본기8 신문왕 12년.

2) 『삼국유사』 권1, 기이1 태종춘추공.

3) 관련 논문은 본문에서 제시하겠다. 한편 논쟁의 발생 시점과 주체에 관해서도 여러 견해가 제시되었다. 이에 관한 내용은 다음 글을 참고 바란다. 안주홍, 「신라 태종 묘호 논쟁의 발생과 원인」, 『新羅史學報』 52, 2021.

려진 시점을 검토할 것이다. 이 작업을 통해 신라의 천하관을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이 글이 신라의 종묘와 천하관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

II. 종묘제 수용과 태종 묘호

『예기』樂記에는 그 諡를 들으면 그 행한 바를 알 수 있다고 하였다. 『설문해자』에 따르면 諡는 행한 흔적을 말한다.⁴⁾ 諡號는 생전의 행적을 기리며 올린 칭호이다. 廟號는 엄격히 말하면 시호의 일종이다. 조선 왕의 시호는 12자로, 신하가 올리는 諡號 8자와 廟號 2자 그리고 명에서 내린 贈諡 2자였다. 묘호는 앞의 글자인 諡와 뒤의 글자인 宗號로 구성된다. 종호는 祖宗으로, 두 가지 원리가 적용된다. 하나는 가계 계승의 원리인 宗法이고, 다른 하나는 功德이다. 종법에 따른 묘호는 帝統에 한해 적용되었다.⁵⁾

신라는 514년에 지증왕이 죽자 智證이라는 시호를 올리면서 諡法이 시작되었다.⁶⁾ 「경주 태종무열왕릉비」의 제액에는 ‘太宗武烈大王之碑’라 새겨져 있다.⁷⁾ 『삼국사기』에는 661년(문무왕 원년)에 태종무열왕이 죽자 시호를 武烈이라 하고, 장례 후 太宗의 호를 올렸다고 전한다. 692년에 태종 칭호 논쟁이 벌어지자, 신라는 태종을 諡號라 하였다. 그런데 『삼국유사』에는 태종을 廟號라 하였다. 일찍이 이기동은 태종을 묘호로 보았고, 노태돈은 시호로 보았다.⁸⁾ 그러나 명확한 근거를 제시한 것은

4) 『예기』악기, “聞其諡 知其行也.” 『說文解字』, “諡 行之跡也.”

5) 임민혁, 『조선의 禮治와 왕권』, 민속원, 2012, 183~185쪽.

6) 『삼국사기』 권4, 신라본기4 지증마립간 15년. 『삼국유사』(왕력)에는 법흥왕에게 시호를 올리면서 시작되었다고 전하고 있어 차이가 있다.

7)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데이터베이스 한국고대금석문, 「경주 태종무열왕릉비」.

8) 李基東, 「新羅 太祖 星漢의 問題와 興德王陵碑의 發見」, 『大丘史學』 15 · 16, 1978: 『新羅骨品制社會와 花郎徒』, 一潮閣, 1984, 373쪽. 盧泰敦, 「三韓에 대한 認識의 變遷」, 『韓國史研究』 38, 1982, 138쪽.

아니었다.

A. ① 나라를 다스린 지 8년인 龍朔 원년(661) 신유에 돌아가시니 나이는 59세였다. 哀公寺 동쪽에서 장사를 지냈는데, 碑가 있다(有碑). ② 왕과 유신은 신비스러운 계책과 큼 힘으로 일통삼한의 큰 功이 社稷에 있다. 그런 까닭으로 廟號를 태종이라 하였다.⁹⁾ (『삼국유사』 권1, 기이1 태종춘추공)

황운룡은 위 사료 ②에 앞에 ‘有碑’에 주목하였다. 이 비를 태종무열왕릉비로 추정하고, ②는 비문의 내용을 그대로 옮긴 1차 사료라고 보았다.¹⁰⁾ 그러나 ①은 태종무열왕의 비가 있다는 사실을 의미할 뿐이다. ②가 태종무열왕릉비를 인용한 것이라고 단언하기 어렵다.¹¹⁾

B. (661년) ① 왕이 죽었다. 시호를 무열로 하고, 永敬寺 북쪽에서 장사를 지냈다. ② 태종이라는 호를 올렸다(上號太宗). ③ 고종이 부고를 듣고, 낙성문에서 애도식을 거행하였다.¹²⁾ (『삼국사기』 권5, 신라본기 5 태종무열왕 8년 6월)

반면 황선영은 위 사료 ②의 ‘上號太宗’을 시호를 태종으로 격상한 것이라고 해석하였다. 또 그는 묘호의 예가 무열왕의 경우뿐이므로, 묘호제가 운영되지 않았다고 보았다. 태종은 무열과 따로 혹은 함께 사용되면서, 사실상 묘호와 같은 구실을 하였다는 것이다.¹³⁾ 최근 묘호의 예가 하나밖에 없고, 신라가 제후 오묘를 운영하였기에 묘호를 올릴 수 없었다는 견해도 제기되었다. 그는 시호 무열을 태종으로 교체하였다고 보았다.¹⁴⁾

9) “御國八年 龍朔元年辛酉 崩壽五十九歲 葬於哀公寺東 有碑 王與庾信 神謀戮力 一統三韓 有大功 於社稷 故廟號太宗.”

10) 黃雲龍, 「新羅太宗廟號의 紛糾始末」, 『東國史學』 17, 1982, 3쪽.

11) 『삼국유사』 아도기라(권3, 흥법3)를 보면, 아도본비를 인용하며 ‘云’이라 하였다. ②의 내용이 비를 인용한 것이라면, ‘云’이라고 표기하였을 것이다.

12) “王薨 諡曰武烈 葬永敬寺北 上號太宗 高宗聞訃 舉哀於洛城門.”

13) 黃善榮, 「新羅의 廟制와 廟號」, 『동의사학』 5, 1989, 16~17쪽.

14) 윤경진, 「新羅 中代 太宗(武烈王) 諡號의 追上과 재해석」, 『韓國史學報』 53, 2013,

그러나 태종의 칭호는 功德에 올린 祖宗의 호칭이다. 前漢은 陵 옆에 廟를 세웠는데(陵旁立廟), 元帝代에 이르러 수도에 천자 7묘(종묘)를 세웠다. 이때 高祖와 文帝를 각기 태조와 태종으로 삼았다.¹⁵⁾ 전한대 祖宗은 4개뿐이었고, 唐代에 이르러 통상적인 천자의 묘호가 되었다. 따라서 祖宗의 칭호가 태종뿐이라며 묘호가 아니라고 볼 수 없다.¹⁶⁾ 이 점은 당 고조를 통해서도 알 수 있다. 당 고조는 618년에 종묘를 세우고 고조 宣簡公, 증조 懿王, 조 景皇帝, 부 元皇帝의 신주를 祔廟하였다.¹⁷⁾ 이때 황제로 추봉한 祖考에게만 각기 태조와 세조의 묘호를 올렸다.¹⁸⁾

최근 묘호가 종묘제의 존재를 보여주는 필요조건일 뿐이라는 견해가 제기되었다. 증고기에 태조의 칭호가 나오지만, 오묘제의 정비가 이루어졌다고 보기 힘들다고 지적하였다.¹⁹⁾ 전한도 종묘(7묘)를 세우기 전에 조종의 칭호를 올렸다. 景帝는 禮樂의 제도를 정하면서, 文帝를 태종으로 삼았다. 이때 고황제는 공이 크고 효문황제는 덕이 두터우니 고조는 태조이고, 문제는 태종으로 천자가 대대로 제사를 올리는 조종의 묘라고 하였다.²⁰⁾ 문제는 경제의 아버지이다. 경제는 문제에게 태종의 칭호를 올려서 아버지가 고조의 정통 계승자임을 드러내고자 하였다.²¹⁾

태종의 칭호는 전한의 경제와 같이 능묘에 조종의 호만을 올린 것일 수도, 원제와 같이 종묘를 세우고 묘호로 올린 것일 수도 있다. 『삼국사기』 제사지에는 해공왕대에 종묘(五廟)를 처음으로 정했다(始定)고 전한

223~224쪽.

15) 金容天, 「前漢 元帝期 韋玄成의 宗廟制論」, 『東洋史學研究』 95, 2006: 『전한후기에 제답론』, 선인, 2007, 234~236쪽.

16) 안주홍, 「신라 애장왕대의 종묘개편과 천자지향」, 『嶺南學』 73, 2020, 252쪽.

17) 『구당서』 권25, 지5 禮儀5, “武德元年五月 備法駕迎宣簡公懿王景皇帝元皇帝神主 祔於太廟 始享四室.”

18) 『구당서』 권1, 본기1 고조, “皇祖諱虎...武德初 追尊景皇帝 廟號太祖 陵曰永康 皇考諱昞...武德初 追尊元皇帝 廟號世祖 陵曰興寧.”

19) 강진원, 「신라 중대 宗廟制 운영과 五廟 始定」, 『역사학보』 245, 2020, 153~157쪽.

20) 『한서』 권5, 경제기 제5, “臣謹議, 世功莫大於高皇帝, 德莫盛於孝文皇帝, 高皇帝廟宜爲帝者 太祖之廟 孝文皇帝廟 宜爲帝諸 太宗之廟 天子 宜世世獻 祖宗之廟.”

21) 윤경진, 앞의 논문, 2013, 219쪽.

다.²²⁾ 그러나 일찍이 변태섭은 신문왕대에 종묘가 성립되었다고 보았다.

C. (687년 4월) 大臣을 祖廟에 보내어 제사를 올리며 말하길, ‘王某은 머리를 조아려 두 번 절하고 삼가 태조대왕, 진지대왕, 문흥대왕, 태종대왕, 문무대왕의 영전에 아뢰입니다...宗廟의 돌보심과 하늘과 땅의 내린 녹을 받들어 四邊이 안정되고 백성이 화목합니다. 異域이 來賓하여 보물을 배에 싣고 奉職합니다. 형벌이 공정하여 송사가 쉬는 것이 지금에 이르렀습니다.’²³⁾ (『삼국사기』 권8, 신라본기8 신문왕 7년)

위 사료와 같이 신문왕은 제문에 태조이하 직계 4친을 언급하였다. 이를 근거로 변태섭은 종묘의 성립 시점을 687년으로 보았다.²⁴⁾ 이후 종묘제의 수용 시점을 태종무열왕대²⁵⁾ 혹은 문무왕대로²⁶⁾ 올려 보는 견해가 제기되었다.

22) 『삼국사기』 권32, 잡지1 제사.

23) “遣大臣於祖廟 致祭曰 王某稽首再拜 謹言太祖大王眞智大王文興大王太宗大王文武大王之靈...奉賴宗廟獲持 乾坤降祿 四邊安靜 百姓雍和 異域來賓 航琛奉職 刑清訟息 以至於今.”

24) 邊太燮, 「廟制의 變遷을 통하여 본 新羅社會의 發展過程」, 『歷史教育』 8, 1964. 종묘의 시점을 신문왕대로 보는 대표적인 견해는 다음과 같다. 濱田耕策, 「新羅의 神宮と百座講會と宗廟」, 『東アジア世界における日本古代史講座』 9, 學生社, 1982; 『新羅國史の研究』, 吉川弘文館, 2002; 米田雄介, 「三國史記に見える新羅の五廟制」, 『日本書紀研究』 15, 塙書房, 1987; 黃善榮, 앞의 논문, 1989; 윤경진, 앞의 논문, 2013; 이현주, 「신라 종묘제의 변천과 태후」, 『사림』 66, 2018; 井上直樹, 「新羅下代景文王의宗廟祭祀と崇福寺」, 『古代寺院史の研究』, 思文閣, 2019; 강진원, 앞의 논문, 2020; 김복순, 「경주 皇福寺址의 역사적 가치 및 특성 - 신라 중대왕실의 宗廟가람과 禪院가람으로서의 특성을 중심으로」, 『신라문화』 60, 2022.

25) 대표적인 논문은 다음과 같다. 朴淳教, 「신라 중대 시조준승 관념의 형성」, 『韓國古代의 考古와 歷史』, 學研文化社, 1997; 李文基, 「新羅 五廟制의 成立과 그 背景」, 『韓國 古代史와 考古學』, 학연문화사, 2000; 박남수, 「신라 宗廟制의 정비와 운영-중국 종묘제의 변천 및 운영원리와 관련하여-」, 『新羅史學報』 49, 2020; 박초롱, 「신라 武烈王系 왕실의 宗廟 구성과 宗廟制 운영」, 『新羅文化』 59, 2021.

26) 대표적인 논문은 다음과 같다. 黃雲龍, 앞의 논문, 1982; 羅喜羅, 「신라의 종묘제 수용과 그 내용」, 『韓國史研究』 98, 1997; 『신라의 국가제사』, 지식산업사, 2003; 蔡美夏, 「新羅 宗廟制의 受容의 그 意味」, 『歷史學報』 176, 2002; 『신라 국가제사와 왕권』, 혜안, 2008; 김나경, 「新羅 五廟制 受容의 意味」, 『韓國古代史研究』 97, 2020.

태종무열왕은 654년에 즉위하며 아버지인 김용춘을 문흥대왕으로 추봉하였다. 일찍이 이기백은 대왕 추봉을 중국의 追諡法을 받아들인 것이자 갈문왕의 발전적 형태라고 하였다.²⁷⁾ 태종무열왕대설은 대왕 추봉을 祔廟를 위한 조치라고 보았다. 반면 이를 부정하는 쪽에서는 대왕 추봉을 갈문왕의 변형으로 보았다.²⁸⁾

『삼국사기』 찬자에 따르면 신라는 추봉왕을 모두 갈문왕이라 칭하였다.²⁹⁾ 또 왕의 친족이 大統을 이으면, 그 아버지를 갈문왕으로 추봉하였다. 전한의 宣帝가 친부인 史皇孫을 제후왕으로 대한 것과 같이, 爲人後者設에 따라 친부의 격을 낮춘 것이라 하였다.³⁰⁾

그러나 갈문왕은 생전에 사용한 칭호이기도 하였다. 「포항 냉수리 신라비」에는 지증왕을 지도로 갈문왕으로 표기하였다.³¹⁾ 또 「울주 천전리 각석」 추명에는 법흥왕을 태왕으로, 입종을 갈문왕으로 표기하였다.³²⁾ 이로 미루어 갈문왕은 재위 왕의 칭호와 구별되는 호칭으로 볼 수 있다.

전한의 선제는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묘를 세우고자 하였으나, 위인후자설에 따라 아버지만 제후왕으로 대우하여 悼園을 두었다. 이후 선제는 아들이 천자이면 아버지를 천자로 제사한다(子爲天子 祭以天子)는 예를 명분으로 皇考廟를 세웠다. 이는 昭帝에서 황고로 다시 선제로 宗統 계승을 정비한 것이다.³³⁾ 선제의 아들인 원제는 황고묘를 포함하여 천자 7묘를 세웠다.³⁴⁾ 원제가 친할아버지인 사황손의 묘를 종묘에 포함할 수 있었던 것은 제후의 원(도원)이 아니라 황제의 묘(황고묘)가 세워져 있

27) 李基白, 「新羅時代의 葛文王」, 『歷史學報』 58, 1973; 『新羅政治社會史研究』, 一潮閣, 1974, 23~25쪽.

28) 채미하, 앞의 책, 2008, 116~117쪽; 강진원, 앞의 논문, 149~151쪽; 김복순, 앞의 논문, 2022.6, 131쪽.

29) 『삼국사기』 권1, 신라본기1 일성이사금 15년.

30) 『삼국사기』 권2, 신라본기2 첨해이사금 원년.

31)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데이터베이스 한국고대금석문, 「포항 냉수리 신라비」.

32)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데이터베이스 한국고대금석문, 「울주 천전리 각석」.

33) 金容天, 「漢 宣帝期 禮制 論義-‘爲人後者’禮說의 變化를 中心으로-」, 『東國史學』 33, 1999: 앞의 책, 2007, 108~114쪽.

34) 金容天, 앞의 책, 234~235쪽.

었기 때문이다.

위의 내용은 『한서』를 통해 알 수 있다.³⁵⁾ 신라에도 『한서』가 수용되어 있었으므로,³⁶⁾ 태종무열왕은 전한대의 황고묘와 천자 7묘를 충분히 알고 있었을 것이다. 대왕 추봉은 태종무열왕의 친부를 신라왕과 같은 존재로 제사한다는 의미이다. 또 대왕은 入廟의 자격을 가질 수 있다. 태종무열왕이 친부를 갈문왕이 아닌 대왕으로 추봉한 이유를 짐작할 수 있다.

태종무열왕은 최초로 진골로서 왕위에 오른 자이다. 그는 즉위의 정통성과 정당성을 드러내는 수단으로, 종묘제를 수용했을 가능성이 크다. 직계 조상을 기리는 새로운 조상 제사를 통해 새로운 왕통의 확립을 도모하였을 것이다.³⁷⁾

그런데 최근 해공왕대에 ‘始定’되었다는 기록에 주목하여, 그 이전은 왕실의 家廟 혹은 私親廟로 국가 전체의 祭場이 아니었다는 견해가 제기되었다.³⁸⁾ 일찍이 변태섭은 종묘를 중국의 묘제로 家祖, 直祖(親祖) 중심의 성격을 가지는 家廟制라 하였다.³⁹⁾ 이는 공통의 조상이 아닌 직계 조상을 중시한다는 의미였다. 종묘 제사는 왕실의 조상을 제사하므로 사적인 제사이면서, 국가의 선조를 제사하는 공적인 제사이다.⁴⁰⁾ 천자의 종묘(太廟)는 건립과 제사를 국가가 담당하는 公廟로, 大臣의 私廟와 같지 않다.⁴¹⁾ 사묘란 천자의 종묘와 대비되는 말이다.⁴²⁾

사친묘는 支子가 왕위를 계승할 때, 그 친부모의 사당을 청하는 말이

35) 『한서』 권73, 韋賢전.

36) 金英河, 「新羅 中代の 儒學受容과 支配倫理」, 『韓國古代史研究』 40, 2005.12: 『新羅 中代社會研究』, 일지사, 2007, 204~205쪽.

37) 이문기, 앞의 논문, 2000, 915~916쪽.

38) 강진원, 앞의 논문, 2020, 169쪽; 박남수, 앞의 논문, 2020, 14쪽; 박초롱, 앞의 논문, 2021, 79쪽; 김복순, 앞의 논문, 2022, 131쪽.

39) 변태섭, 앞의 논문, 1964, 66~68쪽.

40) 박미라, 「宗廟에서 始祖神의 위상과 신격-禘·祫祭祀의 首位 문제를 중심으로-」, 『韓國思想과 文化』 77, 2015, 392~393쪽.

41) 李永, 「宗廟與政治: 武則天時期太廟體制研究」, 『學術學』 49, 2017, 157쪽.

42) 『통전』은 제후, 대부, 사의 종묘를 私廟라 칭하였다(권48, 예8 諸侯大夫士宗廟).

다.⁴³⁾ 後漢의 광무제는 전한의 고조(태조), 문제(태종), 무제(세종)의 불
 훼묘와 자신의 직계 4친을 부묘하여 7묘(종묘)를 세웠다. 이후 광무제가
 전한을 이었으니, 위인후자설에 따라 직계 4친을 私親廟로 두어야 한다
 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이에 광무제는 전한의 고조, 문제, 무제, 선제,
 원제를 태묘에 모시고, 자신의 4친을 남양에서 군신이 제사하게 하였
 다.⁴⁴⁾ 같은 내용이 『통전』에도 전하는데, 이때에는 私廟로 표현되어 있
 다.⁴⁵⁾

고구려의 경우 연노부와 같은 유력한 세력은 종묘를 따로 운영하였다.
 그러나 부체제가 해체되고 중앙집권화가 이루어지면서, 4세기 후반에 이
 르러 왕실 종묘의 유일·일원화 조치가 이루어졌다. 그 과정에서 다른
 세력의 종묘는 폐절되었다.⁴⁶⁾ 신라는 나물왕 이후 김씨가 왕위를 독점
 하였다. 또 태종무열왕의 자손이 왕위를 독점했던 중대는 전제왕권이라
 불릴 만큼 왕권이 강화되어 있었다.⁴⁷⁾ 그런데도 신라가 국가 종묘가 아
 닌 왕실 가묘 혹은 사친묘를 운영했다는 견해는 따르기 어렵다.

태종무열왕대설은 이때 제후 오묘를 세웠다고 보았다. 최근 중국에서
 창업 군주가 처음 종묘를 세울 때 묘수를 고정하지 않았으며, 무열왕이
 태조와 직계 2친의 3묘를 세웠을 것이라는 견해가 제기되었다.⁴⁸⁾ 그러
 나 창업 군주가 7묘를 세우지 못한 것은 가문이 한미한 탓도 있고,⁴⁹⁾

43) 저우허 지음 노인숙 옮김, 『예학을 말하다』, 도서출판 삼화, 2021, 37쪽.

44) 金容天, 「後漢시대 廟議와 宗法觀念」, 『中國古中世史研究』 17, 2007: 앞의 책, 200
 7, 311~317쪽.

45) 『통전』 권50, 예10 祫禘 하, “又立私廟四於南陽 亦後漢制也.”

46) 강진원, 「고구려 宗廟制의 전개와 변천」, 『高句麗渤海研究』 53, 2015, 41~43쪽.

47) 전제왕권의 개념을 둘러싸고 비판과 반박이 전개되었다. 이에 대한 내용은 다음 글을
 참고 바란다. 이영호, 『신라 중대의 정치와 권력구조』, 지식산업사, 2014. 전덕재는
 중대의 연구사를 정리하며 전제적이라 말할 수 있을 정도로 강력한 왕권이 확립된
 것은 부인할 수 없다고 지적하였다(「신라 중대」, 『한국 고대사 연구의 새동향』, 서경
 문화사, 2007, 134쪽).

48) 박초롱, 앞의 논문, 2021, 73~74쪽.

49) 『신당서』 권13, 지3 예악3, “蓋自漢魏以來 創業之君特起 其上世微 又無功德以備祖
 宗 故其初皆不能立七廟.”

정현과 왕숙의 설이 달랐기 때문이기도 하다. 당 고조는 618년에 종묘를 세우며 직제 4친을 부묘하였다. 이는 친묘 4를 부묘한다는 정현의 설을 따른 것이다. 이후 당 태종은 635년에 왕숙의 설에 따라 친묘 6을 부묘하여 천자 7묘를 세웠다.⁵⁰⁾

태종무열왕은 진지왕의 손자이고, 진지왕은 진흥왕의 아들이다.⁵¹⁾ 할아버지와 증조할아버지가 모두 재위한 왕으로, 창업 군주와 결이 다르다. 신라는 진덕왕대에 이미 신정 『예기』와 『예기정의』를 수용하였고, 예부에 대사를 두어 교수하고 있었다.⁵²⁾ 『예기』에 따르면 3묘는 대부에 불과하다.⁵³⁾ 따라서 태종무열왕이 종묘를 운영하며 3묘를 세웠다는 것은 따르기 어렵다.

태종무열왕은 당의 책봉을 받은 제후로서 5묘를 세웠을 가능성이 크다. 태종무열왕의 증조는 진흥왕이다. 진흥왕의 아버지는 갈문왕 입종으로 법흥왕의 동생이다. 이에 4대조를 입종갈문왕으로 보거나,⁵⁴⁾ 법흥왕으로 보았다.⁵⁵⁾ 支子로서 즉위한 전한의 선제는 아버지의 묘만 세울 수 있었다. 그의 예에 따라 태종무열왕은 태조, 법흥왕(백고조), 진흥왕, 진지왕, 문흥왕으로 4묘를 세웠을 것이다.

이미 태종무열왕대에 종묘제를 수용하여, 제후 5묘를 세웠다. 따라서 무열왕에게 올려진 태종의 칭호는 묘호로 보아야 한다. 원성왕이 아버지를 대왕으로 추봉하고 부묘한 것도⁵⁶⁾ 태종무열왕의 예를 따른 것이라 하겠다.

50) 하워드 J. 웨슬러 지음, 임대희 옮김, 『비단갈고 주옥같은 정치』, 고즈원, 2005, 279~285쪽.

51) 『삼국사기』 권5, 신라본기5 태종무열왕 즉위조. 같은 책 권4, 신라본기4 진지왕 즉위조.

52) 안주홍, 「686년 신라 대당 외교의 내용과 목적」, 『大丘史學』 146, 2022, 140쪽.

53) 『예기』 왕제, “天子七廟 三昭三穆 與太祖之廟而七 諸侯五廟 二昭二穆 與太祖之廟而五 大夫三廟 一昭一穆 與太祖之廟而三 士一廟 庶人祭於寢.”

54)李文基, 앞의 논문, 2000, 901~902쪽.

55) 朴淳敎, 앞의 논문, 1997, 407~414쪽; 박남수, 앞의 논문, 2020, 14~15쪽.

56) 『삼국사기』 권10, 신라본기10 원성왕 2년.

Ⅲ. 문무왕의 태종 봉호와 종묘의 위상 강화

일찍이 황운룡은 무열의 시호를 올리고 장례를 지낸 후 태종을 올린 것을 주목하였다. 그는 661년에 무열왕의 장례 후 당의 고애사가 오기 전에 종묘를 세우고 태종을 봉호하였다고 보았다.⁵⁷⁾ 635년 5월에 당 고조가 죽자 태종은 고조에게 시호와 묘호를 올리고 10월에 헌릉에서 장례를 지냈다.⁵⁸⁾ 장례 전에 시호와 묘호를 올린 것이다. 이로 미루어 시호와 묘호가 시차를 두고 올려졌다는 그의 지적은 타견이라 하겠다.

687년에 祖廟에 致祭할 때, 제문에서 태종대왕을 언급하였다. 따라서 봉호 시점의 하한은 687년이다. 신라는 태종 묘호 논쟁이 일어났을 때, 태종의 공업을 일통삼한이라 하였다. 이 점에 주목하고 봉호의 시점을 670년대로 보는 견해가 있다. 그에 따르면 이때 일통삼국 의식(삼국통일론)이 형성되었다. 신라가 일통삼국 의식 속에 당과 대등하다는 천하관을 표방하였다고 보았다.⁵⁹⁾

그런데 태종은 태조의 정당한 계승자를 의미한다.⁶⁰⁾ 이에 일통삼한의 공덕과 별개로 태종을 봉호하였다는 견해도 있다. 665년에 문무왕이 취리산 회맹에 대한 반발로 종묘를 세우며 태종을 봉호했다고 보거나,⁶¹⁾ 687년에 신문왕이 종묘를 정비하며 태조의 정당한 계승자라는 의미로 봉호했다고 보기도 하였다.⁶²⁾

당은 779년에 고조는 國祖首祚로 萬葉을 계승하였고, 태종은 七代之祖라며 불휘묘로 삼았다. 또 805년에 고조는 덕이 周의 文王과 같고, 태종은 하늘에 응하여 난을 평정하고, 왕통을 바로 세웠으니 덕이 周의 武

57) 黃雲龍, 앞의 논문, 1982, 14~15쪽.

58) 『구당서』 권1, 본기1 고조, “(5월) 崩於太安宮之垂拱前殿 年七十 群臣上諡曰大武皇帝 廟號高祖 十月庚寅 葬於獻陵.”

59) 김수태, 「신라의 천하관과 삼국통일론」, 『新羅史學報』 32, 2014, 50~55쪽.

60) 황운룡, 앞의 논문, 1982, 1~2쪽; 박순교, 앞의 논문, 1997, 381~382쪽; 이문기, 앞의 논문, 2000, 916~917쪽; 채미하, 앞의 책, 2008, 121쪽.

61) 주보돈, 「통일신라의 (陵)墓碑에 대한 몇 가지 논의」, 『목간과 문자』 9, 2012, 48쪽.

62) 윤경진, 앞의 논문, 2013, 233~234쪽.

王과 같다고 하였다.⁶³⁾ 후대에 고조와 태종을 불훼묘로 세우며 공업을 새로 올린 것이다. 신라도 일통삼한의 공업을 뒤에 올렸을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봉호 시점의 상한은 태종무열왕이 사망하고 문무왕이 즉위한 661년이다.

문무왕은 661년 6월에 즉위하였다. 그러나 당의 요구로 상중인데도 고구려를 정벌하기 위해 진군하였다. 당시의 상황은 671년에 薛仁貴에게 보낸 답서를 통해서도 알 수 있다. 문무왕은 장례를 지냈지만, 상복은 벗지 못했다고 하였다.⁶⁴⁾ 왕은 661년 10월 29일에 당 황제의 사절이 이르렀다는 소식을 듣고 수도로 돌아왔다. 당 사신은 전왕에게 제사를 지내고 비단 500단을 주었다.⁶⁵⁾ 그런데 신왕의 책명은 곧바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D. (662년) ① 봄 정월에 당나라 사신이 객관에 머물고 있다가 이때 이르러 왕을 開府儀同三司 上柱國 樂浪郡王 新羅王으로 책명하였다. 이찬 文訓을 증시로 삼았다... ② 耽羅國主 佐平 徒冬音律이 항복해 왔다. 탐라는 武德 이래로 백제에 예속해 있었기 때문에 좌평을 관호로 삼았다. 이때 이르러 항복하여 屬國이 되었다. ③ 3월에 크게 사면을 하였다. 왕이 이미 백제가 평정되었으므로 담당 부서에 명하여 大酺를 베풀었다.⁶⁶⁾ (『삼국사기』 권6, 신라본기 6 문무왕 2년)

위의 사료와 같이 문무왕은 662년 정월에 개부의동삼사 상주국 낙랑군왕 신라왕으로 책명받았다. 진평왕, 선덕왕, 진덕왕은 柱國을 받았다.⁶⁷⁾ 상주국은 정2품이고, 주국은 종2품이다.⁶⁸⁾ 당이 전보다 높은 훈

63) 『구당서』 권25, 예의 5, “大歷十四年十月...伏以太宗文皇帝 七代之祖 高祖神堯皇帝 國朝首祚 萬葉所承...永貞元年十一月...高祖神堯皇帝國朝首祚 萬葉所承 德同周之文王也 太宗文皇帝應天靖亂 垂統立極 德同周武王也.”

64) 『삼국사기』 권7, 신라본기7 문무왕 11년.

65) 『삼국사기』 권6, 신라본기6 문무왕 원년.

66) “春正月 唐使臣在館 至是 冊命王爲開府儀同三司上柱國樂浪郡王新羅王 拜伊滄文訓爲中侍...耽羅國主佐平徒冬音律 一作津 來降 耽羅自武德以來 臣屬百濟 故以佐平爲官號 至是降爲屬國 三月 大赦 王以旣平百濟 命所司設大酺.”

67) 『삼국사기』 권4, 신라본기4 진평왕 46년. 같은 책 권5, 신라본기5 선덕왕 4년, 진덕왕 원년.

관을 문무왕에게 준 것이다. 이 점은 비단 500단을 준 것에서도 잘 드러난다. 당은 654년에 진덕왕이 죽자 개부의동삼사를 추증하고, 비단 300단을 주었다.⁶⁹⁾ 당은 전왕의 제사에 두텁게 예를 표하고, 신왕의 훈관을 올렸다. 고구려 원정에 대한 신라의 적극적인 참여를 꾀한 유화책으로 볼 수 있다.

신왕의 책명이 이듬해 정월에 이루어진 것은 즉위 의례와 관련이 있다.⁷⁰⁾ 즉위 의례의 원형은 『尙書』에 보이는데, 크게 禪讓과 嗣位로 구분된다. 선양은 南郊에서 즉위 사실을 하늘에 알리는 의식(告天), 개원과 사면, 태묘(종묘)에 즉위 사실을 알리는 의식으로 정형화되었다. 사위는 殯殿(柩前)에서 遺命을 받아 왕위에 오르는 冊命 의식, 朝廷에서 신하들의 조회를 받는 의식, 종묘를 배알하는 의식으로 정형화되었다. 또 唐代에 이르면 조상에 대한 추존 의식과 황후를 비롯한 제왕과 대신 이하에 대한 冊命 의식이 주요한 부대 의식이 되었다.⁷¹⁾

즉위 의례는 전왕의 권력을 계승하는 단계(전왕의 喪葬, 신왕의 즉위)와 신성성을 획득하는 단계(제사)로 구분된다. 신라의 즉위 의례는 권력을 계승하는 ‘즉위의’와 신성성을 획득하는 ‘親祀始祖廟(神宮)’로 이루어졌다. 즉위의는 神器의 전수, 관리의 임명, 사면 등이 이루어졌다.⁷²⁾

문무왕도 즉위 이듬해인 662년 정월에 중시를 임명하고(D ①), 3월에 사면을 내렸다(D ③). 또 신왕의 권위를 드러낼 수 있는 정치적 의례도 거행되었다. 662년 3월에 耽羅國主 徒冬音律이 항복하고 속국이 되었다(D ②). 문무왕은 탐라의 항복과 관련하여 의례를 거행하였을 것이다.

68) 『통전』 권40, 직관22 질품5, “正二品...上柱國勳 從二品...柱國勳”

69) 『삼국사기』 권5, 신라본기5 진덕왕 8년.

70) 당이 고구려 원정에 소극적인 신라에 대한 불만을 표시하고 적극적인 참여를 압박을 위해 책봉을 늦추었다고 보는 견해도 있다. 이상훈, 「백제 부흥군의 웅산성 주둔과 신라군의 대응」, 『歷史教育論集』 57, 2015: 『신라의 통일전쟁 백제 멸망에서 고구려 멸망까지』, 민속원, 2021, 170쪽; 채미하, 「계림주 설치 전후 당의 정책에 대한 신라의 대응」, 『新羅史學報』 54, 2022, 40쪽.

71) 박계경, 「德治의 상징체계로서 유교국가의 즉위 의례」, 『韓國實學研究』 21, 2011, 177~180쪽.

72) 나희라, 「新羅의 卽位儀禮」, 『韓國史研究』, 116, 2002, 5~6쪽.

또 문무왕은 백제의 평정을 기리며 대포를 열었다(D ③). 이는 백제의 멸망을 기리는 개선의식이다.⁷³⁾ 이러한 의식은 즉위 의례의 하나로 볼 수 있다.

이상의 내용을 생각하면, 문무왕은 즉위 의례의 하나로 무열왕에게 태종의 묘호를 올렸을 가능성이 있다. 이것은 이듬해 남산신성에 長倉을 둔 것을⁷⁴⁾ 통해서도 짐작할 수 있다. 『삼국유사』에 따르면 이곳에 쌀과 무기를 저장했다.⁷⁵⁾ 『예기』 곡례에는 군자가 宮室을 만들 때 宗廟를 먼저 만들고, 다음에 마굿간과 창고를 만들고, 마지막으로 궁실을 만든다고 하였다.⁷⁶⁾ 662년에 태종의 묘호를 올리며 종묘의 정비가 이루어졌기에 663년에 창고를 건립하였던 것으로 볼 수 있다.

662년에 태종을 봉호하였으므로, 그 공덕은 일통삼한이 될 수 없다. 태종은 태조의 정당한 계승자를 뜻한다. 『공자가어』에는 禮에 祖는 功이 있고, 宗은 德이 있으니 그 廟는 허물지 않는다고 하였다.⁷⁷⁾ 무열왕은 태종의 묘호를 받아 불훼묘가 되었을 것이다. 문무왕은 태종무열왕이 태조와 같은 공통의 조상임을 선포하여, 새로운 왕통이 확립되기 바랬을 것이다.

이후 문무왕은 태종을 모신 종묘의 위상을 강화하기 위해 국가 제사 제도를 정비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하여 『天地瑞祥志』를 살펴보자. 『천지서상지』는 666년 4월에 薩守眞이 지었다고 한다. 총 20권인데, 현재 9권만 남아 있다. 다행히 1권에 啓와 목록(明目緣)이 남아 있어 저자와 전체 구성을 파악할 수 있다.⁷⁸⁾

살수진은 신라인 薛秀眞과 같은 인물이다.⁷⁹⁾ 『천지서상지』 권20 祭惣

73) 채미하, 앞의 논문, 2022, 42쪽.

74) 『삼국사기』 권6, 신라본기6 문무왕 3.

75) 『삼국유사』 권2, 기이2 문호왕법민.

76) 『예기』 곡례 하, “君子將營宮室 宗廟爲先 廩庫爲次 居室爲後.”

77) 『공자가어』 변물, “禮 祖有功而宗有德 故不毀其廟焉.”

78) 김용천·최현화 역주, 『천지서상지』, 예문서원, 2007, 11~14쪽. 이 책은 『천지서상지』의 1권과 20권을 역주한 것이다. 이후 『천지서상지』의 원문은 모두 이 책에서 인용하였다.

載는 국가 제사를 설명하는데, 封禪을 필두로 郊, 巡狩, 社稷, 宗廟(拜墓附見), 藉田(蠶附見) 등의 주요 제사와 祭馬, 治兵, 盟誓와 같은 군사 활동에 관한 제사로 구성되어 있다.⁸⁰⁾ 이 가운데 당에서 행한 예를 꼽은 것이 봉선과 맹서이다. 이 두 가지는 모두 신라가 참여한 것이다. 이를 통해서도 살수진이 신라인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천지서상지』는 瑞祥에 관한 陰陽書인데, 국가 제사(제충제)에 관한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문무왕대에 종묘 제사를 비롯한 국가 제사 전반의 정비가 있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천지서상지』의 종묘편은 종묘의 설치 근거, 昭穆과 廟數, 제삿날과 종류 등의 기본적인 개념을 소개하는 것으로 구성되어 있다.⁸¹⁾

이때 제삿날과 종류를 설명하며 ‘瑞應과 정벌한 나라에서 획득한 보물은 禘祫를 지낼 때 종묘의 뜰에 진설한다’라고 하였다.⁸²⁾ 당시 신라가 체협제를 행하였는지는 알기 어렵다. 다만 662년에 백제 정벌을 기념하며 개선의식을 한 것을 생각하면, 이때 획득한 보물을 종묘에 진설하지 않았을까 한다. 이런 의식을 통해 종묘의 위상은 이전과 달리 크게 올라갔을 것이다. 그런데 종묘편에는 拜墓를 부기하고 있어 주목할 필요가 있다.

E. 『진서』에서 말하길, ① 옛날에는 墓祭의 禮가 없었다. 漢이 秦을 이었는데, 모두 園寢이 있었다...② 魏 무제(조조)는 高陵에 葬하였는데, 한에 따라서 왕릉 위에 祭殿을 세웠다. 문제는 224년에 이르러 조를 내려 말하길...‘옛날에는 墓祭가

79) 권덕영, 『『天地瑞祥志』 편찬자에 대한 새로운 시각』, 『白山學報』 52, 1999; 박승홍, 『『천지서상지』 편찬자 연구』, 『한국사학회사학회지』 35권 1호, 2013; 안상현, 『『천지서상지』에 쓰인 이두와 편찬자』, 『문헌과 해석』 63, 2013. 김일원은 살수진을 신라인이 아니라고 보았다(『『天地瑞祥志』의 역사적 의미와 사료적 가치 : 撰者에 대한 재검토와 『高麗史』 所引 記事 검토』, 『韓國古代史研究』 26, 2002).

80) 김용천·최현화 역주, 앞의 책, 2007, 118~119쪽.

81) 『효경』을 인용하여 종묘설치의 근거를 제시하고, 『예기』를 인용하여 소목의 개념과 천자 7묘 이하 서인까지의 묘수를 설명하였다. 이후 『司令』을 인용하여 時祭와 禘祫祭를 설명하였다. 김용천·최현화 역주, 앞의 책, 2007, 204~209쪽.

82) 『천지서상지』 권20, 제충제 종묘, “諸瑞應及伐國所獲之寶物 禘祫則陳於廟庭也.”

없고 廟에서 진설하였다. 고릉 위의 제전을 모두 허물어서 先帝의 검소한 덕의 의례를 따르도록 하라.’ 이후로 園寢의 제도가 드디어 사라졌다.⁸³⁾ (『천지서상지』 권20, 종묘 拜墓見)

위 사료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①은 墓祭가 원래 없던 제사인데, 진·한대에 園寢을 두었다는 것이다. ②는 위 문제가 고릉의 祭殿을 철거하면서 원침 제도가 없어졌다는 것이다. 진·한대의 원침이란 陵 옆의 廟와 陵園안의 침전과 편전을 말한다(陵旁立廟). 後漢대에 이르러 하나의 묘(종묘)에 여러 황제의 신주를 모시는 同堂異室로 바뀌었으나, 陵寢은 여전히 건립되었다. 이 능침이 위 문제의 조치로 폐지된 것이다.⁸⁴⁾ 위 사료의 핵심은 조상 제사는 종묘에서 지내며, 墓에 祭殿을 세워 제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신라도 능방입묘에 따라 시조묘를 건립했다.⁸⁵⁾ 『천지서상지』에 능묘(능침)제도의 정비를 특기한 것은 문무왕대에 관련 조치가 있었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F. (664년) 2월 담당 관리에게 명하여, 여러 왕의 陵園에 백성을 옮겼는데 각 20호였다.⁸⁶⁾ (『삼국사기』 권6, 신라본기 6 문무왕 4년)

위 사료와 같이 문무왕은 664년에 여러 왕의 陵園에 20호씩 사민하였다. 이에 문무왕 이전의 왕의 능을 정비한 것이지만, 그중에서도 직계 왕의 능에 관심을 가졌을 것이라는 견해가 있다.⁸⁷⁾ 반면 진골 귀족들이 무열왕계의 직계를 모신 종묘 제사에 불만을 가져, 이를 무마하기 위해

83) 『천지서상지』 권20, 제충재 종묘 배묘부건, “晉書曰 古無墓祭之禮也 漢承秦 皆有園寢也...魏武帝葬高陵 依漢立陵上祭殿 至文帝黃初三年 乃詔曰...古不墓祭 皆設於廟 高陵上殿皆毀壞 以從先帝儉德之禮 自後園寢遂絕也.”

84) 金容天, 앞의 책, 2007, 324~326쪽.

85) 나희라, 앞의 책, 2003, 75~82쪽; 박남수, 앞의 논문, 2020, 3~4쪽; 김복순, 앞의 논문, 2022, 128쪽.

86) “二月 命有司 徙民於諸王陵園 各二十戶.”

87) 채미하, 앞의 책, 2008, 128쪽.

역대 국왕의 능원 제사를 정비하여 우대하였다는 견해도 있다.⁸⁸⁾

전한 원제는 7묘(종묘)를 세우며, 親盡한 태상황과 혜제의 園寢을 허물었다.⁸⁹⁾ 그보다 앞서 郡國廟를 철폐하면서, 戾太子(원제의 증조) 내외 등의 침원도 모두 철폐하여 제사하지 않고 吏卒을 두어 지키게 하였다.⁹⁰⁾ 전한은 여태자 내외처럼 황제가 아닌 자도 寢園을 세웠는데,⁹¹⁾ 이때 철폐한 것이다. 여태자의 경우를 생각하면, 태상황과 혜제도 사줄을 두었을 가능성이 있다. 사료 F는 전한의 경우로 미루어 여러 왕의 능묘를 철폐하고 수묘인을 둔 조치로 볼 수 있다.

신라 중대는 당의 영향으로 중고기의 왕릉과 달리 제단석을 두었다.⁹²⁾ 문무왕은 능묘를 철폐하고 제단을 두는 정비를 단행했던 것으로 보인다. 문무왕이 681년에 유조를 내리며 분묘를 치장하지 말라고 요구한 것도⁹³⁾ 이런 상황을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능묘의 철폐는 다음 사료를 통해서도 알 수 있다.

G. 신라 30대 왕 법민은 용삭 원년(661) 신유 3월일에 制를 내려 말하였다...이런 까닭으로 元君(수로왕)은 나에게 곧 15대조 始祖가 된다. 나라를 다스리는 자는 이미 폐하였으나, 葬廟는 지금도 남아 있다. 宗祧에 합하여(合于宗祧) 제사가 계속되게 하라.⁹⁴⁾ (『삼국유사』 권2, 기이2 駕洛國記)

위 사료와 같이 661년 3월에 문무왕은 수로왕을 宗祧에 합사하여 제사 지내게 하였다. 그러나 태종무열왕은 661년 6월에 사망하였으므로,

88) 박초롱, 「新羅 國家禮制 研究」,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22, 164쪽.

89) 『한서』 권73, 위현전, “太上孝惠廟皆親盡 宜毀 太上廟主宜瘞園 孝惠皇帝爲穆 主遷於太祖廟 寢園皆無復修.”

90) 『한서』 권73, 위현전, “臣等愚以爲宗廟在郡國 宜無修 臣請勿復修 奏可 因罷昭靈后武哀王昭哀后衛思后戾太子戾后園 皆不奉祠裁置吏卒守焉.”

91) 金容天, 앞의 책, 2007, 209~210쪽.

92) 이근직, 「新羅의 喪葬禮와 園陵制度」, 『신라문화제학술발표논문집 신라 왕경인의 삶』 28, 2007, 222~223쪽.

93) 『삼국사기』 권7, 신라본기7 문무왕 21년.

94) “新羅第三十王法敏 龍朔元年辛酉三月日 有制曰...茲故 元君於幼冲人 乃爲十五代始祖也 所御國者已曾敗 所葬廟者 今尙存 合于宗祧 續乃祀事.”

이듬해 2월의 오기로 보는 견해가 있다.⁹⁵⁾ 문무왕 재위 중의 일을 즉위 년에 기록한 것으로 보는 견해도 있다.⁹⁶⁾ 어느 쪽을 따르든 문무왕대의 일은 분명하다.

『예기』 제의에는 궁실을 짓고 宗祧를 설치하여 親疏와 遠邇를 구별하였다고 전한다.⁹⁷⁾ 따라서 종조는 종묘이다. 그런데 종조를 신라의 종묘로 보고, 당시 신라가 태조, 진지왕, 문흥왕, 태종무열왕, 수로왕을 부묘하였다는 견해가 있다. 문무왕이 즉위 초에 중국식 종묘제를 수용하였지만, 김유신의 영향으로 외가의 선조를 부묘하였다는 것이다.⁹⁸⁾ 혹은 부계의 태조와 모계의 시조인 수로왕, 문흥왕(조), 태종무열왕(부)의 4묘를 운영했다는 견해도 있다.⁹⁹⁾ 제후 5묘가 아니라는 것이다. 같은 맥락에서 외가의 선조를 모신 것이므로, 유교적인 종묘로 볼 수 없다는 비판도 있다.¹⁰⁰⁾

그러나 위 사료는 신라가 가야의 종묘를 복원한 것이다.¹⁰¹⁾ 따라서 종조는 가야의 종묘이다. 장묘는 葬禮를 행한 왕릉에 세운 묘이므로, 능묘로 볼 수 있다. 위 사료는 신라가 수로왕의 능묘를 철폐하고, 새로 가야의 종묘를 세워 수로왕의 신주를 합한 사실로 보아야 한다.

종묘의 위상은 665년 취리산 회맹을 통해서 더욱 강화되었던 것 같다. 신라는 665년에 취리산에서 부여융과 맹약을 맺고, 맹문을 종묘에

95) 채미하, 앞의 책, 2008, 128쪽.

96) 박초룡, 앞의 논문, 2022, 160쪽.

97) 『예기』 제의, “筑爲宮室 設爲宗祧 以別親疏遠邇.”

98) 채미하, 앞의 책, 2008, 124~129쪽.

99) 이현주, 앞의 논문, 2018, 173쪽.

100) 강진원, 앞의 논문, 2020, 153~154쪽; 김복순, 앞의 논문, 2022, 133쪽.

101) 박남수, 「신라 문무대왕의 삼국통일과 宗廟制 정비」 『新羅史學報』 38, 2016, 303~305쪽. 다만 그는 수로왕릉에 역대 왕들의 제사를 합쳤다고 보았다. 박초룡도 종조를 가야의 종묘로 해석하였다(「문무왕대 고구려·가야의 조상제사 재개 조치와 그 의미-중국 二王後 제도와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韓國古代史研究』 86, 2017, 126~131쪽). 그러나 뒤에 견해를 바꾸어, 종조는 국가적으로 숭배되는 조상의 계보이며, 수로왕에 대한 제사를 국가 제사로 대우한 조치라고 보았다(앞의 논문, 2022, 162~163쪽).

보관하였다. 맹약은 『삼국사기』의 신라본기와 백제본기, 『삼국유사』의 태종춘추공, 『구당서』 백제전, 『책부원구』, 『천지서상지』에 보인다.¹⁰²⁾ 각 자료를 비교하면 가장 상세한 것은 『책부원구』이고, 맹문의 序와 文을 모두 기록한 것은 『천지서상지』이다. 『삼국사기』 신라본기는 『책부원구』의 내용을 원전으로 하여, 문장의 주체를 신라로 바꾸어 기술하면서 일부 표현을 고쳤다. 다만 맹약의 장소를 웅진성이 아닌 취리산으로 기술하고 있어, 내부 전승 자료도 인용한 것으로 보인다.¹⁰³⁾

H-1) ① 8월에 開府儀同三司 新羅王金法敏과 웅진도위 扶餘隆이 백제의 熊津城에서 맹세하였다...② 그 맹문에서 말하길...前 백제 태자 司稼正卿 부여융을 웅진도독으로 삼아 제사를 지키고 고향 땅을 보존하게 하니, 신라에 의지하여 오래도록 동맹국(與國)이 되어라. 목은 원한을 없애고 結好和親하고, 함께 詔命을 받들어 영원이 藩服이 되어라'라고 하였다...그러므로 金書鐵券을 만들어 宗廟에 보관하고 자손만대에 감히 어기지 말라...③ 피를 마시고 희생과 예물을 제단의 북쪽 땅에 묻고 그 글은 신라의 묘(新羅之廟)에 보관하였다.¹⁰⁴⁾ (『책부원구』 권981, 盟誓)

2) 대당 인덕 2년 가을 8월, 칙사 劉仁願, 신라왕 및 백제 왕이 취리산에서 맹약하였다...그 序에서 말하길...그 文에서 말하길 '대당 인덕 2년 세차 기축 8월 경자 삭 13일 임자에 鷄林州大都督 左衛大將軍 開府儀同三司 上柱國 신라왕 김법민과 司稼正卿 行熊津州都督 부여융 등이 감히 皇天后土 山谷의 신께 알립니다.'¹⁰⁵⁾ (『천지서상지』 권20, 盟誓).

102) 『삼국사기』 권6, 신라본기6 문무왕 5년. 같은 책 권28, 백제본기6 의장왕 인덕 2년. 『삼국유사』 권1, 기이1 태종춘추공. 『구당서』 권199 상, 동이열전 백제 인덕 2년 8월.

103) 전덕재, 『三國史記 본기의 원전과 편찬』, 주류성, 2018, 176~178쪽.

104) “高宗麟德二年八月 開府儀同三司新羅王金法敏 熊津都尉扶餘隆 盟於百濟之熊津城...其盟文曰...故立前百濟太子 司稼正卿 扶餘隆 爲熊津都督 守其祭祀 保其桑梓 依倚新羅 長爲與國 各除宿憾 結好和親 恭承詔命 永爲藩服...故作金書鐵券 藏之宗廟 子孫萬代 無敢違犯...畝訖 埋書牲幣於壇之壬地 藏其書於新羅之廟.”

105) “大唐麟德二年秋八月 勅使劉仁願 新羅王及百濟隆 盟于就利山 其序曰...其文曰 維大唐麟德二年歲次己丑八月庚子朔十三日壬子 鷄林州大都督 左衛大將軍 開府儀同三司 上柱國 新羅王 金法敏 司稼正卿 行熊津州都督 扶餘隆等 敢昭告于 皇天后土 山谷神祇.”

사료 H-1)은 맹약을 맺게 된 경위(①), 맹문(②), 삼혈과 맹문의 보관 등 행위(③)를 자세히 기술하고 있다. 『예기』 곡례에 따르면 기일에 미쳐 약속한 장소에서 서로 만나는 것이 흠이고, 牲을 하여 피를 마시며 신에게 맹세하는 것이 옳이다.¹⁰⁶⁾ 취리산 회맹은 춘추전국시대의 회맹 의식을 따른 것으로, 회맹문을 철계에 기록하고 둘로 나누어 보관했다. 맹약의 주관자는 당이고, 맹약의 당사자는 신라왕 김법민과 웅진 도독 부여융이다.¹⁰⁷⁾

그런데 ③에 보이듯이 삼혈 후 맹문을 ‘신라의 묘(新羅之廟)’에 보관하였다. ②에 보이듯이 당은 부여융의 제사를 복원시켰다. 그러나 맹문의 보관지로 백제의 종묘는 언급하지 않았다. 신라만 언급한 것이다. 신라 지묘란 신라의 종묘로,¹⁰⁸⁾ 맹문을 보관한 당사자를 강조한 표현이다. 왜 중국은 신라의 종묘에 맹문을 보관하였다고 기록한 것일까?

사료 H-2)에는 鷄林州大都督 左衛大將軍 開府儀同三司 上柱國 신라왕 김법민과 司稼正卿 行熊津州都督 부여융으로 되어 있다. 문무왕이 받은 대도독은 종2품, 좌위대장군은 정3품, 개부의동삼사는 종1품이다.¹⁰⁹⁾ 부여융이 받은 사가정경은 사농경으로 종3품이고,¹¹⁰⁾ 도독은 3품이다.¹¹¹⁾

당에서 제후 5묘는 2품 이상과 3품 중에 작을 받은 자가 세우며, 대부 3묘는 5품 이상이 세운다.¹¹²⁾ 문무왕은 종1품이므로 제후 5묘를 세

106) 『예기』 곡례 하, “諸侯...相見於卻地曰會...約信曰誓 蒞牲曰盟.”

107) 박찬홍, 「665년 신라·백제·당나라의 취리산 회맹문」, 『내일을 여는 역사』 26, 2006, 239~240쪽.

108) 이문기, 앞의 논문, 2000, 898쪽. 반면 신라가 신문왕대에 종묘제를 성립하였다고 보고, 665년의 신라지묘는 당이 자신의 종묘와 달라서 그렇게 표현했다고 보는 견해도 있다. 강진원, 앞의 논문, 2020, 154~155쪽; 김복순, 앞의 논문, 2022, 132~133쪽.

109) 『통전』 권40, 직관22 질품5, “從一品 開府儀同三司...郡王爵...正二品...上柱國勳 從二品...大都督...正三品...左右衛...等大將軍”

110) 『당육전』 권19, “司農寺卿 一人 從三品...龍朔二年 改司稼寺正卿 咸亨中復舊.”

111) 『통전』 권40, 직관22 질품5, “正三品...中都督...從三品...下都督.”

112) 『통전』 권48, 예8 諸侯大夫土宗廟, “大唐制 凡文武官二品以上 祠四廟 三品以上須兼爵 四廟 外有始封祖 通祠五廟 五品以上 祠三廟.”

을 수 있다. 부여융은 3품이나 작을 받지 못하였으므로,¹¹³⁾ 대부 3묘를 세울 수 있다. 이상의 내용을 정리하면 <표 1>과 같다.

<표 1> 문무왕과 부여융 관품과 당의 제후이하 종묘 비교

구분	『예기』	『통전』	신라	백제
7묘	천자	천자	-	-
5묘	제후	2품이상, 3품 작위자	중1품	-
3묘	대부	5품이상	-	3품

취리산 회맹시 문무왕은 당의 제후로서, 부여융은 당의 대부로서 참석하였다. 『삼국유사』에 부여융을 가짜 왕이라 표현한 것도 이러한 상황을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사료 H-1) ②와 같이 당은 백제가 ‘신라에 의지’하고, 두 나라가 ‘結好和親’하여 영원이 ‘藩服’이 되라고 하였다. 이는 당이 백제와 신라를 자신의 변국으로 보면서도, 신라의 우위를 인정한 것이다. 맹문을 보관하는 당사자로 신라만이 기록된 것도 이 때문으로 볼 수 있다. 신라는 종묘에 맹문을 보관하며 일정한 의례를 행하였을 것이다. 이를 통해 태종을 모신 종묘의 위상은 더욱 강화되었을 것이다.

IV. 일통삼한의 공덕 추승과 이중적 천하관

692년에 신라는 김춘추가 賢德하여 一統三韓의 功業으로 태종의 호를 올렸다고 하였다. 또 『삼국사기』 제사지에 따르면 해공왕은 태종대왕과 문무대왕을 백제와 고구려를 평정한 큰 功德으로 대대로 허물지 않는 宗으로 삼았다.¹¹⁴⁾ 이로 미루어 일통삼한이란 백제와 고구려를 평정한 것과 같다.¹¹⁵⁾ 따라서 일통삼한의 공덕이 부여된 시점의 상한은 고구려

113) 부여융이 중1품인 대방군왕으로 임명된 것은 677년이다. 『구당서』 권199상, 열전 백제, “儀鳳二年 拜光祿大夫 太常員外卿 兼熊津都督 帶方郡王 令歸本蕃 安輯餘眾.”

114) 『삼국사기』 권32, 잡지1 제사.

가 멸망한 668년이다.

I-1) (668년) ① 11월 5일에 왕은 고구려인 7천을 포획하여 왕경에 들어왔다. ② 6일에 문무신료를 이끌고 先祖廟를 조알하였다. ③ 고하여 말하니, 조상이 남긴 뜻(先志)을 공경히 만들어 大唐과 함께 의로운 병사를 일으켰습니다. 백제와 고구려에게 죄를 물으니, 元凶이 죄를 받고 나라가 태평하고 평안하게 되었습니다.¹¹⁶⁾ (『삼국사기』 권6, 신라본기6 문무왕 8년)

2) (668년 10월) ① 李勣이 장차 도착하려 하니, 황상이 먼저 高藏 등을 昭陵(태종릉)에 바치고, 軍容을 갖추고 개선가를 부르며 경사에 들어와 태묘에 바치게 하였다. ② 12월 정사(7일)에 황상은 含元殿에서 포로를 받았다. ③ 정묘(17일)에 황상이 남교에서 제사를 지내고 고구려를 평정한 것을 고하였다...기사일(19일)에 태묘를 배알하였다.¹¹⁷⁾ (『자치통감』 권201, 당기17 총장 원년)

사료 I-1)과 같이 668년 11월에 문무왕은 고구려 포로를 포획하여 왕경에 들어왔다(①). 다음날 문무신료와 함께 先祖廟를 배알하였다(②). 신라는 종묘를 祖廟, 宗祧와 같이 다양한 용어로 칭했다. 선조묘도 종묘의 이칭이다.¹¹⁸⁾ 그런데 사료 I-2)와 같이 당 고종도 이적에게 고구려 포로를 소릉(태종릉)과 종묘에 바치도록 하였다(①). 이에 일찍부터 두 기록의 유사성이 지적되었다. 문무왕이 당 고종과 같이 종묘에 배알하여 개선의식의 하나로 포로를 바치는 의식을 했다는 것이다.¹¹⁹⁾

사료 I-2) ①은 크게 세 의식으로 구분할 수 있다. 먼저 포로를 태종릉에 바치는 의식이다. 다음은 개선 행진을 하며 수도로 돌아오는 의식이다. 마지막은 태묘에 바치는 의식이다. 당 고종은 함원전에서 포로를 받고(②), 태묘에 배알하였다(③). 이로 미루어 앞의 두 의식은 이적이,

115) 평정과 일통을 구분하는 견해는 다음과 같다. 김영하, 「一統三韓의 실상과 의식」, 『韓國古代史研究』 59, 2010: 앞의 책, 일지사, 2007; 김수태, 앞의 논문, 2014.

116) “十一月五日 王以所虜高句麗人七千入京 六日 率文武臣寮 朝謁先祖廟 告曰 祇承先志 與大唐同舉義兵 問罪於百濟高句麗 元凶伏罪 國步泰靜.”

117) “李勣將至 上命先以高藏等獻于昭陵 具軍容 奏凱歌 入京師 獻于太廟...十二月丁巳 上受俘于含元殿...丁卯 上祀南郊 告平高麗...己巳 謁太廟.”

118) 이문기, 앞의 논문, 2000, 898쪽.

119) 이문기, 앞의 논문, 2000, 897~898쪽; 박남수, 앞의 논문, 2016, 299쪽.

마지막 의식은 고종이 거행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문무왕이 당 고종과 다르게 개선 행진의 주체가 된 것은 친정을 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사료 I-1) ③과 같이 문무왕은 종묘에 포로를 바치며 ‘先志’에 따라 ‘백제와 고구려에게 죄를 물었다’라고 하였다. 그 의미는 이듬해인 669년 2월에 여러 신하에게 내린 敎를 통해 알 수 있다. 문무왕은 태종무열왕이 본래 양국을 평정하고자 하였고(本欲平定兩國), 자신이 아버지의 뜻(先志)을 이루어서 지금 양적이 이미 평정(今兩敵既平)되었다고 하였다.¹²⁰⁾ 따라서 668년의 先志는 태종무열왕의 뜻이고, 두 나라에 죄를 물은 것은 양국의 평정으로 볼 수 있다. 바로 일통삼한이다. 종묘에 일통삼한을 고한 것이므로, 이때 태종무열왕에게 일통삼한의 공덕을 올렸을 가능성이 크다.

신라는 7세기 이후 대외적으로 당의 제후국을 인정하면서도 내부적으로 황제를 표방하였다.¹²¹⁾ 일통삼한의 의미도 이중적 천하관 속에서 찾을 수 있다. 『예기』 대학에는 몸을 닦은 후에 집을 바르게 하고, 그 후에 나라를 다스릴 수 있으며, 그 후에 천하를 평정한다고 하였다.¹²²⁾ 일통삼한은 ‘삼한’이라는 천하를 ‘평정(일통)’한 것으로, 문무왕은 삼한의 천자가 된다.

그러나 신라의 이중적 천하관이 이때 비로소 표방된 것은 아니었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662년에 문무왕은 무열왕에게 태종의 묘호를 올렸다. 문무왕은 당의 책봉을 받은 제후이면서, 帝統에 한정된 묘호를 올린 것이다. 이는 이중적인 천하관 속에서 가능하였다. 이러한 천하관은 같은 해 탐라를 속국으로 삼았다는 사실에서도 잘 알 수 있다. 신라는 당의 제후이면서도 탐라와 같은 속국을 거느리는 천자를 표방하였다.

그런데 『신당서』에는 탐라가 태산 봉선(666년) 이후에 신라에 부용하

120) 『삼국사기』 권6, 신라본기6 문무왕 9년, “二月二十一日 大王會羣臣下敎...先王...本欲平定兩國 永無戰鬪 雪累代之深讎 全百姓之殘命 百濟雖平 高句麗未滅 寡人承克定之遺業 終已成之先志 今兩敵既平 四隅靜泰.”

121) 金昌謙, 「新羅 國王의 皇帝의 地位」, 『新羅史學報』 2, 2004, 221~227쪽.

122) 『예기』 대학, “身修而後家齊 家齊而後國治 國治而後天下平.”

였다고 전한다.¹²³⁾ 665년에 취리산 회맹 후 유인케는 신라, 백제, 탐라, 왜의 4國使를 거느리고 태산 봉선에 참여하였다.¹²⁴⁾ 666년의 봉선 의례는 당이 4국에게 자신의 권위를 보여준 의식이다. 동시에 신라 우위의 4국 관계를 용인한 의식이었을 가능성이 있다. 당이 신라의 우위를 인정한 백제와 탐라가 참석하기 때문이다.¹²⁵⁾

당은 탐라를 자신에게 입조하는 동이의 하나로 보면서도, 신라에 부용하는 존재로 보았다. 이는 당이 자신을 중심으로 하는 일원적인 위계질서를 지향하면서도, 하위 존재 사이에 주장된 지배와 복속을 용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삼국사기』와 『신당서』에 시점을 다르게 기록된 것은 당이 봉선 이후 신라의 주장을 인정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당시 고구려도 봉선에 참여하였는데,¹²⁶⁾ 해당 기록에 언급되지 않았다. 당이 고구려에 대한 신라의 우위를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인 것 같다. 668년은 신라의 우위가 고구려까지 확대된 때라 할 수 있다. 문무왕은 선조묘(종묘)에 백제와 고구려의 평정을 고하며, 마침내 일통한 삼한의 천자임을 선포하였을 것이다. 이러한 의식을 통해 종묘의 위상은 이전과는 크게 달라졌을 것이다.

J. (681년) 가을 7월 1일 왕이 죽었다...유조를 내려 말하길...① 宗廟의 주인은 잠시도 비워서는 안 되므로, 태자는 관 앞(柩前)에서 왕위를 이으라...② 魏 임금의 西陵 땅루는 단지 동작(銅雀)이라는 이름만을 들을 수 있을 뿐이다...헛되이 재물을 쓰면 서책에 꾸밈음만 남길 뿐이요, 헛되이 사람을 수고롭게 하는 것은 죽은 사람의 넋을 구원하는 것이 못 된다...③ 죽고 나서 10일 뒤에 곧 庫門 바깥의 뜰에서 西國의 의식에 따라 화장을 하라.¹²⁷⁾ (『삼국사기』 권7, 신라본기 7 문무왕 21년 7월)

123) 『신당서』 열전 145, 동이 담라, “初附百濟 麟德中 酋長來朝 從帝至太山 後附新羅.”

124) 『삼국사기』 권6, 신라본기6 문무왕 5년.

125) 4국의 하나로 왜인도 언급된 점을 볼 때, 당이 왜에 대한 신라의 우위를 인정했을 가능성이 있다. 이에 대해서는 후고를 기약한다.

126) 『자치통감』 권201, 인덕 2년, “八月 壬子 同盟于熊津城 劉仁軌以新羅百濟耽羅倭國使者浮海西還...高麗亦遣太子福男來侍祠.”

127) “秋七月一日 王薨...遺詔曰...宗廟之主 不可暫空 太子即於柩前 嗣立王位...魏主西陵之望 唯聞銅雀之名....徒費資財 貽譏簡牘 空勞人力 莫濟幽魂...屬纊之後十日 便於庫

위 사료와 같이 681년 7월 1일 문무왕은 유조를 내렸다. 교서나 조서는 『삼국사기』 찬자의 개서로 보기 어려우므로,¹²⁸⁾ 유조의 내용은 당대의 표현으로 볼 수 있다. 문무왕은 ③과 같이 문무왕은 庫門의 바깥 뜰에서 화장하라고 하였다. 고문은 천자의 5문의 하나로, 신라가 7세기 후반에 중국식 구조의 왕궁을 갖추었다는 것을 의미한다.¹²⁹⁾ 679년 8월에 문무왕은 내외의 여러 문에 額號를 정하였다.¹³⁰⁾ 이는 궁궐뿐만 아니라 수도를 정비한 것으로, 국왕과 중대 왕실의 권위를 과시한 것이다.¹³¹⁾ 이때 문무왕은 삼한의 천자로서 庫門을 비롯한 5문을 정비하고, 이름을 정한 것으로 보인다.

문무왕은 유조에서 종묘의 주인은 잠시도 비워서는 안 되므로, 태자는 관 앞(樞前)에서 왕위를 이으라고 하였다(J ①). 그런데 당 태종도 유조에서 종묘를 운운하며 구전 즉위를 명하였다. 이에 일찍부터 문무왕이 중국의 구전 즉위를 수용하였고, 이후 후대의 전례가 되었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¹³²⁾

K. (649년) 종묘와 사직(宗社)은 주인이 없으면 안 되니 황태자는 관 앞(樞前)에서 황제로 즉위하라. 周와 漢의 옛 제도를 따르라.¹³³⁾ (『全唐文』 권9, 太宗 遺詔)

위 사료는 『전당문』에 실린 당 태종의 유조이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門外庭 依西國之式 以火燒葬.”

128) 이문기, 앞의 논문, 2000, 896쪽.

129) 李泳鎬, 「7세기 新羅 王京의 變化」, 『신라문화제학술논문집』 26, 2005, 196~200쪽.

130) 『삼국사기』 권7, 신라본기7 문무왕 19년.

131) 李泳鎬, 「新羅의 遷都 문제」, 『韓國古代史研究』 36, 2004; 앞의 책, 2014, 396쪽. 한편 이동주는 「儀鳳四年皆土명 기와를 분석하여 679년에 왕경개조가 이루어졌다고 보았다(「新羅 儀鳳四年皆土명 기와와 納音五行」 『歷史學報』 220, 2013; 『신라 왕경 형성과정 연구』, 경인문화사, 2019, 149~160쪽).

132) 채미하, 「신라 凶禮의 수용과 그 의미」, 『韓國思想史學』 42, 2012; 『신라의 오례와 왕권』, 혜안, 2015, 194~198쪽. 반면 나희라는 그 구체적인 양상을 알기 어려워 어느 정도 수용된 것인지, 또 어느 시기까지 거행되었는지 알기 어렵다고 하였다(앞의 논문, 2002, 17쪽).

133) “宗社存焉 不可無主 皇太子即於樞前 即皇帝位 依周漢舊制.”

사위 의례는 殯殿(柩前) 즉위, 조정 조회, 종묘 배알로 이루어졌다. 사료 K의 구전 즉위란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의미한다. 그런데 『구당서』에 따르면 고종은 즉위하며 사면을 내리고, 즉위 이듬해 개원을 하고 신하들의 조례를 받고 황후를 책봉하였다.¹³⁴⁾ 신문왕도 즉위 후 상대등을 배수하고 이듬해 神宮에 친히 제사하고 대사면을 내렸다.¹³⁵⁾ 이즈음 당의 책봉도 받았다. 두 사람 모두 구전 즉위, 종묘 배알의 기록이 없다. 즉위 의례 가운데 일부만 기록에 남은 것으로 볼 수 있다.

당 태종이 유조에서 언급한 종묘는 즉위 의례가 이루어지는 공간으로, 실체를 반영한 것이다. 천자 7묘는 周의 제도라 말하지만, 漢·唐대를 거치며 정형화되었다. 당 태종은 635년에 묘실을 늘려 7묘를 세웠다. 그는 천자 7묘를 세웠다는 자신감 속에서 ‘종묘와 사직’을 언급하고 ‘주와 한의 옛 제도를 따르라’라고 할 수 있었을 것이다.

이로 미루어 문무왕이 유조에서 언급한 종묘도 관용구로¹³⁶⁾보기 어렵다. 신라가 종묘 배알을 제외한 채 사위 의례를 수용했을 가능성이 작기 때문이다. 문무왕도 당 태종처럼 종묘를 정비했다는 자신감 속에서 태자에게 구전 즉위를 명할 수 있었을 것이다.

한편 신라가 신궁에서 즉위 의례를 하였으므로, 최고의 국가 제장은 신궁이고 종묘는 제도적으로 정착하지 못했다는 견해가 있다.¹³⁷⁾ 『삼국사기』 제사지에 따르면 지증왕대에 시조가 誕降한 곳에 신궁을 세웠다.¹³⁸⁾ 이에 시조가 천신의 성격을 가졌다고 보는 견해가 있다.¹³⁹⁾ 또 신라본기에는 소지왕이 시조가 初生한 곳에 신궁을 세웠다고 한다.¹⁴⁰⁾

134) 『구당서』 권4, 본기4 고종 상, “(정관) 二十三年五月己巳 太宗崩...六月甲戌朔 皇太子即皇帝位 時年二十二 詔曰...可大赦天下...永徽元年春正月辛丑朔...詔改元...壬寅 御太極殿 受朝而不會 丙午 立妃王氏爲皇后.”

135) 『삼국사기』 권8, 신라본기8 신문왕 원년, 2년.

136) 강진원, 앞의 논문, 2020, 152쪽; 김복순, 앞의 논문, 2022, 133쪽.

137) 강진원, 앞의 논문, 2020, 157~161쪽.

138) 『삼국사기』 권32, 잡지1 제사.

139) 濱田耕策, 앞의 책, 2002, 23~27쪽; 나희라, 앞의 책, 2003, 147~151쪽. 신궁의 주신을 둘러싼 견해는 나희라의 글을 참고 바란다(앞의 책, 2003, 140~141쪽).

140) 『삼국사기』 권3, 신라본기 3 소지마립간 9년.

『예기』大傳편에는 예법에 왕이 아니면 禘제사를 지낼 수 없고, 왕은 그 조상의 나온 곳(所自出)에 체제를 지내며, 그 조상을 그곳에 배향한다고 전한다.¹⁴¹⁾ 이에 정현은 큰 제사를 체라고 하는데, 선조가 태어난 곳에(所由生) 크게 제사를 지내며, 하늘에 제사 지내는 郊祀라고 하였다.¹⁴²⁾ 初生을 所由生(所自出)으로 보면, 신궁 제사는 교사가 된다.

어느 쪽을 따르든 신궁은 천신적 성격을 가지는 시조에게 지내는 제사이다. 신궁은 시조를 숭배하는 재래의 신앙을 바탕으로 하여, 중국의 교사제도를 수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¹⁴³⁾ 교사가 천자의 제사인 만큼, 신라왕은 신궁 제사를 통해 천자의 지위를 표방했다고 볼 수 있다.

태종무열왕대와 문무왕대를 거치며 유교 지배체제가 정비되었고, 그 과정에서 신궁 제사는 교사 제사의 성격이 확실해졌을 것이다. 신궁 제사는 하늘에 대한 제사이고 종묘 제사는 조상에 대한 제사로 볼 수 있다. 양자는 성격이 다른 것이다. 신궁에서 즉위 의례가 이루어졌으므로 종묘가 국가 제장이 아니었다는 견해는 따르기 어렵다.

신라왕은 당의 제후이자 삼한의 천자라는 이중적인 천하관을 가졌고, 일통삼한 의식을 통해 표방되었다. 이러한 이중적인 천하관은 신문왕대로 이어졌다. 687년에 신문왕은 조묘에 치제하며 四邊이 안정되고 異域이 來賓한다고(사료 C) 자부하였다. 또 692년에 당 중종이 태종문황제가 神功聖德하여 태종의 묘호를 올렸다고 하자, 신문왕은 김춘추도 일통삼한의 공업으로 태종의 칭호를 올렸다고 하였다. 이는 무열왕도 삼한의 천자로 조종의 묘호를 받았다는 의미다. 태종 묘호에 반영된 천자 의식

141) 『예기』대전, “禮 不王不禘 王者禘其祖之所自出 以其祖配之.”

142) 『禮記正義』권34, 대전 16, “凡大祭曰禘 自由也 大祭其先祖所由生 謂郊祀天也 王者之先祖 皆感大微五帝之精以生.” 체제를 교사 혹은 종묘 제사로 보는 견해의 의미 등은 박미라의 글을 참고 바란다(앞의 논문, 2015, 390~392쪽, 395~399쪽).

143) 신종원, 「三國史記 祭祀志 研究」, 『史學研究』 38, 1984, 18~23쪽. 그는 『삼국유사』 천사옥대조에 郊廟大祀로 표현된 점에 주목하여 당시 조상제사는 신궁에서만 지냈으므로, 교묘는 신궁을 말한다(앞의 논문, 1984, 27쪽). 박남수는 신궁의 주신을 나물왕으로 추정하였다(같은 논문, 1984, 27쪽). 박남수는 신궁의 주신을 박혁거세로 추정하고, 郊祭를 지내는 곳이라고 보았다(앞의 논문, 2020, 11~13쪽).

은 혜공왕대의 개편으로 문무왕에게까지 확장되었다.¹⁴⁴⁾

V. 맺음말

이제까지 태종묘호와 관련된 세 가지 논쟁점을 살펴보았다. 첫째, 신라는 태종무열왕대에 제후 오묘를 세웠으므로, 태종은 종묘에 올려진 묘호이다. 둘째, 662년에 문무왕은 즉위 의례를 거행하며 무열왕에게 태종의 묘호를 올렸다. 셋째, 668년에 문무왕은 태종에게 일통삼한의 공덕을 올렸다. 일통삼한은 삼한이라는 천하를 평정한 것을 뜻한다. 신라왕은 당의 제후이면서도 삼한의 천자라는 이중적인 천하관을 표방하였다. 본문의 내용을 요약하며 글을 마치겠다.

2장에서는 태종의 성격을 살펴보았다. 태종은 공덕에 따라 올린 조종의 칭호이다. 前漢은 조종의 칭호가 4개뿐이었고, 唐代에 이르러 모든 선조에 조종의 호칭을 올리며 묘호로 인식되었다. 신라는 전한의 예에 따라 공덕이 있는 태종에게만 묘호를 올렸다. 태종무열왕은 전한의 皇考 廟를 명분으로, 친부인 김용춘을 문흥대왕으로 추봉하였다. 이는 아들이 천자이면 아버지를 천자로 제사한다는 예를 따른 것이다. 태종무열왕은 태조, 법흥왕(백고조), 진흥왕, 진지왕, 문흥왕을 부모한 제후 5묘를 운영하였다. 이때 종묘가 운영되었으므로, 무열왕에게 올려진 태종의 칭호는 묘호로 보아야 한다.

3장에서는 봉호의 시점을 살펴보았다. 662년에 즉위 의례로 문무왕은 당의 책봉을 받고, 백제 평정을 기리는 개선의식을 행하였다. 이때 태조의 정당한 계승자라는 의미로, 무열왕에게 태종의 묘호를 올리고 불훼묘로 삼았다. 이후 문무왕은 종묘의 위상을 강화하기 위해 陵廟를 철폐했다. 664년에 陵園 사민은 역대 왕의 능묘를 철폐하며 수묘인을 둔 것이다. 신라인 살수진이 지은 『천지서상지』에 拜墓附見이 특기된 것은 이

144) 안주홍, 앞의 논문, 2020, 252~253쪽.

때문이다. 665년에 문무왕은 당의 제후로서 부여융은 당의 대부로서 회맹을 하였다. 회맹문은 신라의 종묘에 보관되었고, 그 과정에서 종묘의 위상은 더욱 강화되었다.

4장에서는 일통삼한 공덕의 부여 시점과 신라의 천하관을 살펴보았다. 일통삼한은 양국평정과 같은 의미이다. 해공왕대 백제와 고구려를 평정한 공덕으로 태종무열왕과 문무왕을 불훼묘로 세운 것에서 알 수 있다. 668년에 문무왕은 고구려를 평정하고 선조묘(종묘)에 개선의식을 거행하였다. 이때 태종에게 일통삼한의 공덕을 올렸다. 일통삼한은 삼한이라는 천하를 평정하였다는 의미로, 신라왕이 삼한의 천자라는 것을 뜻한다. 문무왕은 681년에 유조를 내려 柩前 즉위를 명하였다. 嗣位 의례는 殯殿(柩前) 즉위, 조정 조회, 종묘 배알로 정형화되었다. 종묘는 즉위 의례가 거행되는 공간이었다. 한편 신라왕이 즉위 의례로 거행한 신궁 제사는 하늘에 대한 제사(郊祀)로, 조상에 대한 제사인 종묘와 성격이 다르다. 일련의 과정을 통해 종묘는 국가 제사의 祭場으로 자리매김하였다.

※ 이 논문은 2022년 8월 12일에 투고 완료되어
2022년 8월 22일부터 9월 6일까지 심사위원이 심사하고,
2022년 9월 7일 편집위원회에서 게재 결정된 논문임.

참고문헌

- 『삼국사기』, 『삼국유사』, 『구당서』, 『신당서』, 『자치통감』, 『책부원구』, 『통전』, 『예기』, 『한서』.
- 김용천·최현화 역주, 『천지서상지』, 예문서원, 2007.
- 김용천, 『전한후기예제담론』, 선인, 2007.
- 나희라, 『신라의 국가제사』, 지식산업사, 2003.
- 임민혁, 『조선의 禮治와 왕권』, 민속원, 2012.
- 채미하, 『신라 국가제사와 왕권』, 해안, 2008.
- 강진원, 「신라 중대 宗廟制 운영과 五廟 始定」, 『역사학보』 245, 2020.
- 권덕영, 「『天地瑞祥志』 편찬자에 대한 새로운 시각」, 『白山學報』 52, 1999.
- 김나경, 「新羅 五廟制 受容의 意味」, 『韓國古代史研究』 97, 2020.
- 김복순, 「경주 皇福寺址의 역사적 가치 및 특성 - 신라 중대왕실의 宗廟가람과 禪院가람으로서의 특성을 중심으로」, 『신라문화』 60, 2022.
- 김영하, 「一統三韓의 실상과 의식」, 『韓國古代史研究』 59, 2010.
- 金容天, 「漢 宣帝期 禮制 論義-‘爲人後者’禮說의 變化를 中心으로-」, 『東國史學』 33, 1999.
- 金容天, 「前漢 元帝期 韋玄成의 宗廟制論」, 『東洋史學研究』 95, 2006.
- 金容天, 「後漢시대 廟議와 宗法觀念」, 『中國古中世史研究』 17, 2007.
- 김수태, 「신라의 천하관과 삼국통일론」, 『新羅史學報』 32, 2014.
- 金昌謙, 「新羅 國王의 皇帝의 地位」, 『新羅史學報』 2, 2004.
- 羅喜羅, 「신라의 종묘제 수용과 그 내용」, 『韓國史研究』 98, 1997.
- 나희라, 「新羅의 卽位儀禮」, 『韓國史研究』 116, 2002.
- 박남수, 「신라 문무대왕의 삼국통일과 宗廟制 정비」, 『新羅史學報』 38, 2016.
- 박남수, 「신라 宗廟制의 정비와 운영-중국 종묘제의 변천 및 운영원리와 관련하여-」, 『新羅史學報』 49, 2020.
- 박례경, 「德治의 상징체계로서 유교국가의 즉위의례」, 『韓國實學研究』 21, 2011.
- 박미라, 「宗廟에서 始祖神의 위상과 신격-禘·祫祭祀의 首位 문제를 중심으로-」,

- 『韓國思想과 文化』 77, 2015.
- 朴淳教, 「신라 중대 시조존숭 관념의 형성」, 『韓國 古代의 考古와 歷史』, 學研文化社, 1997.
- 박찬홍, 「665년 신라 · 백제 · 당나라의 취리산 회맹문」, 『내일을 여는 역사』 26, 2006.
- 박초롱, 「신라 武烈王系 왕실의 宗廟 구성과 宗廟制 운영」, 『新羅文化』 59, 2021.
- 박초롱, 「新羅 國家禮制 研究」,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22.
- 邊太燮, 「廟制의 變遷을 통하여 본 新羅社會의 發展過程」, 『歷史教育』 8, 1964.
- 신종원, 「三國史記 祭祀志 研究」, 『史學研究』 38, 1984.
- 안주홍, 「신라 애장왕대의 종묘개편과 천자지향」, 『嶺南學』 73, 2020.
- 안주홍, 「신라 태종 묘호 논쟁의 발생과 원인」, 『新羅史學報』 52, 2021.
- 윤경진, 「新羅 中代 太宗(武烈王) 諡號의 追上과 재해석」, 『韓國史學報』 53, 2013.
- 李文基, 「新羅 五廟制의 成立과 그 背景」, 『韓國 古代史와 考古學』, 학연문화사, 2000.
- 李泳鎬, 「新羅의 遷都 문제」, 『韓國古代史研究』 36, 2004.
- 李泳鎬, 「7세기 新羅 王京의 變化」, 『신라문화제학술논문집』 26, 2005.
- 이현주, 「신라 종묘제의 변천과 태후」, 『사림』 66, 2018.
- 주보돈, 「통일신라의 (陵)墓碑에 대한 몇 가지 논의」, 『목간과 문자』 9, 2012.
- 蔡美夏, 「新羅 宗廟制의 受容의 그 意味」, 『歷史學報』 176, 2002.
- 채미하, 「계림주 설치 전후 당의 정책에 대한 신라의 대응」, 『新羅史學報』 54, 2022.
- 黃善榮, 「新羅의 廟制와 廟號」, 『동의사학』 5, 1989.
- 黃雲龍, 「新羅太宗廟號의 紛糾始末」, 『東國史學』 17, 1982.
- 李永, 「宗庙与政治：武则天时期太庙体制研究」, 『学术学术』 49, 2017.

Abstract

The Temple name(廟號) Taejong(太宗) of Silla and perception of Il tong-samhan(一統三韓)

An, Ju-hong

This article examines the temple name(廟號) of Taejong(太宗) of Silla(新羅) and the ritual of Il tong-samhan(一統三韓). Taejong is a name of jojong(祖宗) given according to virtue(功德). Taejong is a tablet that is celebrated forever(不毀廟). Jongmyo Shrine(宗廟) started during King Taejong Muyeol. Therefore, Taejong is the temple name.

In 662, King Munmu performed the coronation ceremony. At this time, King Muyeol was given the temple name called Taejong. That means King Taejo(太祖)'s legitimate successor.

In 668, King Munmu conquered Goguryeo(高句麗). This was reported in the Seonjomyo(先祖廟). At this time, King Taejong was given credit for Il tong-samhan. Il tong-samhan means to unify the world(天下) called Samhan. And Kings of Silla was the emperor(天子) of Samhan and a servant(諸侯) of the Tang Dynasty. Through this process, Silla's Jongmyo Shrine was able to establish itself as a place where state rituals were held.

keywords :

Taejong(太宗), Jongmyo Shrine(宗廟), View of the world(天下觀), Cheonjiseosangji(天地瑞祥志), Seonjomyo(先祖廟)

